



'파묘'

오컬트



'뒤주'



'씬'



'오멘:저주의 시작'

신작들, '파묘' 흥행 바통 이어받을까

올해 개봉작 가운데 첫번째 천만 영화로 등극한 '파묘' 흥행과 맞물려, 주술이나 유령 등 영적 현상을 극화한 '오컬트' 신작들이 극장가에 쏟아질 예정이다.

28일 개봉한 '뒤주'는 전지프로젝트 '뒤주'를 진행하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저주를 마주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다. 프로젝트를 맡은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숨겨진 욕망을 발산하며 숨겨져 있던 공포를 경험한다. 김시운, 박예리, 신기환 등이 출연하며 감독에 김지은.

'뒤주'는 영조가 사도세자를 가뒤편 죽였던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김 감독은 뒤주가 몽골에서 유목민들의 이동형 감옥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뒤주와 원혼을 모티브로 영화를 제작했다.

작품의 오컬트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미술감독 전은숙의 역할이 컸다. 몽골 유목민의 분위기가 깃든 '뒤주'를 만들기 위해 오래 방치된 폐목을 구입하거나, 문래동 작업실에서 '우거진 거미숲'을 연상시키는 공간을 형성했다.

영화 '파묘'와의 공통점도 뚜렷하다. 파묘에서

'관'이었던 것이 '뒤주'에서는 '뒤주'로 바뀌었다. 이들 내부에는 모두 괴기스런 존재인 '그것'이 들어 있어 호기심을 자아낸다. 또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미지의 존재를 통해 인간의 원초적 공포를 자극하는 '판도라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흥행 법칙을 접목한 '뒤주'가 오컬트 유행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받고 있다.

한편 4월 개봉 예정인 오컬트 작품들도 벌써부터 영화 팬들 사이에서 기대평을 받고 있다.

4일 개봉작 '씬' (공식 개봉일 미정)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영화에 대한 영화'다. 그러나 제목 '씬'이 영화 장면(Scene)이 아니라 죄(Sin)라는 점은 반전의 묘 중 하나. '오컬트 영화'는 숨겨진 추리 요소들이나 이스터에그 등을 퍼즐처럼 맞춰 가며 감상하는 재미가 주는 이룬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씬'의 씬들은 메타 영화답게 영화를 촬영하는 내용이 추가 된다. 작중 전위적인 요소로 해외의 우수 영화제에서 이름을 알리던 유명 감독 '휘옥'은 춤을 소재로 한 신작 촬영을 위해 신인 배우 시영, 채운과 폐교 옥상에서 촬영을 시작한다. 파격적인 춤사

위가 이어지고 제작진들은 기묘한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

"심연의 가장 깊은 죄, 악마가 깨어났다"는 캐치는 작중 촬영 현장이 아비규환이 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선 공개한 스틸컷은 '파묘'의 화립(김고은), 봉길(이도현)의 얼굴에 적혀 있던 경문과 유사해 두 작품을 겹쳐 보게 한다.

같은날 개봉하는 '오멘:저주의 시작'은 수녀가 되기 위해 로마로 떠난 마거릿(넬 타이거 프리분)이 악의 재림, 악마의 음모 등을 마주하며 신앙을 시험받는 내용을 다뤘다.

1967년 개봉한 '오멘' 시리즈는 오컬트 장르 중에서도 레전드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 '666'을 뚫고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펼쳐진 영화로, 이번 시리즈는 전작의 앞선 이야기를 다룬 프리퀄이다. 바티칸 권력자인 로렌스 추기경(빌 나이) 등이 펼쳐는 압권의 연기를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개봉일 미정) '거룩한 밤: 데몬헌터스'는 흥행 보증수표 마동석

주연의 다크 판타지다.

영화는 한국판 '콘스탄틴'을 표방하며 악마 사냥꾼 팀인 '거룩한 밤'이 악을 숭배하는 집단에 맞서는 스토리다. 바위 같은 맨주먹으로 악을 때려잡는 배우(마동석)와 악마를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냥(서현), 그리고 이들이 그려내는 시놉시스는 이번 작품에 '노아르'와 '오컬트'적 요소가 적절히 혼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현문섭 감독의 미스터리물 '사흘(가제)'도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이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죽은 딸의 심장 안에서 악마가 깨어나면서 벌어지는 사투를 다룬 오컬트 드라마로 주연 차승도 역에 박신양, 반 신부 역에 이민기 등이 출연한다.

죽은 존재의 부활과 악마의 재림 등을 위시하는 섬뜩한 로그라인은 시네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그동안 '은하해방전', '제니, 주노' 등 밝은 분위기의 영화에서 연출·단역을 맡아오던 현 감독의 새로운 필모그래피를 볼 수 있을지 기대를 받는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파묘' 올해 개봉작 첫 1천만 영화 '뒤주'·'씬'·'오멘:저주의 시작' 등 각양각색 추리요소들 감상포인트 '파묘'와 비교분석하는 재미도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3개의 피아노 협주곡'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4월11일 광주예술의전당

'정열과 우주의 음악가'

지나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라흐마니노프는 국내에서 오래 사랑받아 온 러시아의 음악가다. 그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은 베토벤, 쇼팽, 비발디 등과 함께 명곡 반열에 올라 클래식 애호가들이 즐겨 듣는다.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가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3개의 피아노 협주곡'이라는 주제로 4월 11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공연을 펼친다.

공연은 러시아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가 라흐마니노프의 3개 피아노 협주곡을 들려주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풍부한 감정 표현과 생기 있는 곡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올림바단조, Op.1'이 막을 연다. 이어 '피아노 협주곡 2번 단조, Op.18'과 '피아노 협주곡 3

번 라단조, Op.30'이 올려 퍼진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는 하마사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 톨티보 크레스팽 콩쿠르를 비롯해 아서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마스터콩쿠르,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등을 석권했다. 현재 성신여대 음악대학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홍콩, 뉴질랜드, 프랑스 등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어린 음악가를 양성하고 있다.

지휘를 맡는 최영선은 비엔나시립음대 피아노 전공에 최연소로 입학했으며, 그라츠 국립음대에서 피아노과 및 합창 지휘과, 오케스트라 지휘과, 서울대 음악대학원 지휘과를 졸업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전속 지휘자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광주예술의전당 모성일 홍보팀장은 "이번 공연은 높은 테크닉을 요하는 러시아 음악가 '라흐마니노프'의 3개 협주곡을 축광받는 러시아 피아니스트

의 연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라며 '연주자에게 '죽음의 곡'이라고도 불리는 피아노 협주곡 3번 등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성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IP 11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인터파크 티켓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파묘'를 ACC에서 찍었다고?

일부 장면 촬영 '화제'... 영화·드라마·예능 촬영지로 인기



영화 '파묘' 촬영지가 됐던 ACC의 창조원과 정보원 있는 지하 2층 복도. <ACC 제공>

영화 '파묘'는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을 엮은 오컬트 미스터리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배우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개봉 31일만에 올해 첫 '천만 영화' 고지에 올랐다.

'파묘'의 흥행 속 일부 장면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제작진은 지난 2022년 2월 ACC 문화창조원 전시관과 문화정보원 도서관을 잇는 지하 2층 복도를 미국 병원 세트장으로 꾸렸다. 배우 김고은과 이도현이 목숨이 위태로운 아기를 만나 미국 병원을 방문하는 장면을 이곳에서 촬영한 것.

'파묘' 외에도 ACC는 지금까지 영화, 드라마, 예능 촬영지로 각광을 받아왔다. 2017년

SBS 예능 '백종원의 푸드트럭'을 비롯해 영화 '상류사회', '공작', '더 박스', 웹드라마 '나의 로켓', '택배기사', SBS 예능 '런닝맨', '오! 마이 웨딩', 단편영화 '목화수 피는 날' 등 10여 편의 촬영이 이루어졌다.

이강현 전당장은 "ACC는 현재 영화 '파묘' 촬영지를 소개할 안내 간판을 제작 중에 있다. 인증샷을 위한 공간도 준비 중"이라며 "ACC 내 이색 촬영지를 발굴하는 등 시민 모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ACC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CC는 지난 2020년 '한국의 야간 관광 명소 100선'에 선정됐으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미를 갖춘 현대 이색 건축물로도 뽑혀 56개의 건축물이 소개된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물 가이드북'에 게재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매일매일 다른 '길을 찾아서'

임희정 초대전, 4월 3일~14일 양림미술관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길을 만난다. 매일 매일 출퇴근하는 길도 어제와 다른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길로 다가온다. 다른 길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세상과의 연결을 의미한다.

어쩌면 삶이란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여정인지 모른다. 물리적인 길, 심리적인 길, 종교적인 길 등 종류도 다양하다. 누군가에게 평탄한 길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울퉁불퉁한 길이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눈물 없이 걷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길일 수도 있다.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왔느냐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인생길' 또한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이다.

이제껏 세상에는 길을 소재로 무수히 많은 작품들이 창작됐다. 길은 상상의 보고이자 창작의 발원지다.

임희정 작가가 길을 모티브로 양림미술관에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작품을 선보인다.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는 일상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깊

은 사유를 요한다.

임 작가는 전시를 준비하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다. "인생 쓰다고 뻘지 마. 조금만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오니까. 고진감래(苦盡甘來) 흥진비래(興盡悲來)라는 말을 생각해야 한다" 즉,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오고,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다가온다'는 뜻이다.



'Attention 3'



'Attention 4'

작품 'path-추억은 방울방울'은 아련한 인생길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적당한 곡선과 균등한 데 넓고 좁은 폭으로 이어진 길에는 희로애락이 드리워져 있다. 나선형의 모양과 차분하면서도 격조가 느껴지는 색감은 삶에 대한 긍정을 이야기한다.

'길위에서'를 주제로 한 연작은 여전히 진행 중인 우리 삶의 단면을 압축적이면서도 밝은 색감, 단조로운 구도로 펼쳐냈다. 방향을 표시하는 듯한 도형들은 스스로 방향을 찾아 제 길을 내는 인생의 신비를 은유하는 것도 같다.

임 작가는 "나는 한 사람이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는 길, 그 끝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길은 계속 이어지고 그저 아주 천천히 희미해져 갈 뿐이다"고 전했다.

한편 임 작가는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광주미술협회원 등 단체전과 회원전, 광주국제아트페어(광주23) 등 다수의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우수기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3년 국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전국 49개 국립박물관 및 67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평가다.

'설립목적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관리'를 비롯해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11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박물관은 5개 항목 중 '전시 개최'와 '교육 프로그램 실적'에서 만점을 받았다. 전시 분야에

서는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했던 '어느 수집가의 초대 이경희 회화 기증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도자문화의 인지도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거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 온라인 놀이터 'MOP(Museum On Play)'를 구축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애령 관장은 "광주박물관은 도자문화를 대표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정체성을 겸비한 문화기관"이라며 "이번 평가 인증제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